

‘미국발 쇼크’ 추가급락 ... 1700도 붕괴

‘블랙먼데이’ 날벼락 ... 투자자 ‘아연실색’

어제 코스피 지수 51포인트 하락 올들어 최대 폭 美 경기부양책 기대 못미쳐 ... 외인 5조원 순매도

미국발 악재로 인해 21일 코스피지수가 1,700선마저 붕괴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 거래일에 장중 폭락했다가 막판 뒷심을 발휘해 1,700선을 지켰던 지수가 이날 1,700선 밑으로 무너지자 투자자들은 ‘아연실색’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에 비해 51.16포인트(2.95%) 떨어진 1,688.56에 마감,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11월21일 65.25포인트(3.49%) 급락한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코스닥지수도 14.45포인트(2.17%) 하락한 651.87로, 역시 올 들어 가장 낮은 지수를 보였다. <미국발 악재가 급락 배경>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인한 미국 경기침체 우려와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신흥국가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 등이 지수 하락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미국발 경기 침체는 중국과 신흥시장의 경제부진으로 연결돼 결국 글로벌 경기둔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증시를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주 미국이 발표한 세금환급을 통한 경기부양대책이 기대수준에 못미쳤다는 시장의 싸늘한 평가를 받으며 미국 지수 하락을 부추겼다는 점도 이날 폭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투자자들 ‘망연자실’> 투자자들은 이날 지수가 1,700선 밑으로 무너지자 얼마나 더 떨어져야 바닥에 도달할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외국인인 유가증권시장에서 올 들어 단 하루만 순매수를 나타냈을 뿐, 3일부터 1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고수하면서 낙폭을 키웠다. 올 들어 이날까지 외국인의 누적 순매도 규모는 5조3천332억원으로 5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날 유가증권시장(845조7천357억원)과 코스닥시장(93조2천863억원)을 합친 시가총액은 939조22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12조7천412억원이 증발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한마디로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지난주 지수가 이미 많이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예상보다 낙폭이 커 당황하는 투자자가 많았으며 특히 증가로 1,700선이 무너지면서 투자자들이 더 동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수준이 바닥-매수기회 목소리’도> 전문가들은 지수가 외부 악재에 휘둘리고 있어 단기적으로 추가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 시점이 바닥권으로 평가되니 만큼 저가매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셋증권 이정호 리서치센터장은 “미국 경기는 지금이 바닥이며,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금리가 낮은 수준이어서 결국 증시로 자금이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시는 반등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펀드, 환매사태 오나

증시급락 ... 환매 문의 전화 급증 주식형펀드 절반이상 ‘원금손실’

증시 급락으로 대규모 펀드 환매(펀드런)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증권·자산운용 업계에 따르면 이날 주요 증권사들의 지점 영업창구에서는 향후 증시 전망과 함께 펀드 환매에 대한 문의 전화가 급증하는가 하면 실제 환매 주문도 많아지는 등 위기가감이 고조되는 모습이 보였다. 대우증권 상품관리파트 김경식 과장은 “오늘부터 개인들의 환매가 나오는 것 같다. 금액은 아직 집계 중이지만 신규 설정액보다 환매액이 많은 것은 최근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1,700선 지지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환매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 같다. 증시 회복이 지연될수록 환매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병한 한국투자증권 압구정지점장은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하게 가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1,600 이하로 내려간다면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제로거나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된다. 이럴 경우 심리적인 공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증시의 하락 압력을 높이는 최대 악재가 외국인의 매도 공세라면 펀드 환매는 증시를 자칫 패닉 상태로 몰아갈 수 있는 최대의 잠재 악재로 지적되고 있다. 투매에 가까운 외국인의 매도 공세로 증시 수급이 취약해진 가운데 대규모 펀드 환매 사태까지 겹칠 경우 수급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가의 추가하락 여부보다는 오히려 추가 하락이 펀드런을 불러올 지 여부가 증시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증시가 단기간에 급락하면서 투자 원금을 까먹은 주식형펀드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자산운용협회의 전자공시에 따르면 설정액 100억원 이상인 공모 주식형펀드 596개 중 17일 현재 순자산총액이 설정액(투자원금)을 밑도는 펀드는 322개로 전체의 54%에 달한다. /연합뉴스

한국인 주요 해외 소비국 싱가포르·중국 지고 뉴질랜드·독일 뜬다

한국인들의 주요 해외소비 국가로 필리핀·싱가포르·중국이 뜨고 뉴질랜드·이탈리아·독일 등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비씨카드에 따르면 2007년 해외 소비가 많이 발생했던 상위 20개국의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필리핀이 1위를 차지했다. 필리핀에서 비씨카드 매출액은 지난해 51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95%, 2005년에 비해서는 200% 이상 급증했다. 싱가포르의 지난해 매출액 증가율이 45%로 2위에 올랐다. 중국은 매출액 증가율 45%로 3위, 일본은 43%로 4위, 홍콩은 40%로 5위로 나타났다. 한편 뉴질랜드(4%)·이탈리아(11%)·독일(12%)·캐나다(14%)·대만(23%)은 20개 국가 중 매출액 증가율이 낮은 5개국으로 꼽혔다. /연합뉴스



광주 남구 ‘빛찬들 한라봉’ 출하

21일 광주시 남구 도덕마을 이송대서 가족들이 손수 재배한 한라봉을 수확하고 있다. 이씨는 2년째 ‘빛찬들 한라봉’을 재배, 생산하고 있는데 제주산에 비해 당도가 30% 이상 높으며 7개들이 3kg 한 상자를 3만원에 출하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인수위, 규제개혁 착수

시스템 정비·시급한 것 ‘투트랙’ 방식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안을 일단락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규제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인수위는 전국경제인연합 등이 작성한 현장의 요구사항을 담은 규제개혁 관련 보고서를 바탕으로 규제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시급한 과제를 별도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원인 박형준 의원은 “규제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과 당장 정비가 시급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 등 ‘투트랙(two track)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금융규제나 현장에서 간절하게 정비를 원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따로 리스트업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선 인수위는 21일 오후 경남대 극동

문제연구소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KT 등 주요 기업의 경영진과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 R&D 투자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방향을 직접 재원 투입 위주에서 조세 지원 등 자발적 투자를 촉진하는 간접지원제도로 확대하고 민간의 여유재원을 기업 R&D 영역으로 유인하는 새로운 기술금융제도 도입 등을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인수위는 또 경제5단체의 공동건의 가운데 연구중심 벤처기업과 R&D 시설에 대한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등의 건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대한화재 3,526억에 팔렸다

롯데와 본계약 체결 ... 대주그룹 유동성 확보 순조

롯데그룹이 대주그룹과 대한화재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롯데는 21일 본계약 체결을 통해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과 대한시멘트, 대한페이퍼에 보유한 대한화재 지분 56.98%를 인수하게 됐으며 인수대금은 3천526억원이다. 롯데가 인수한 대한화재 지분은 호텔 롯데가 27.72%, 롯데역사 22.67%, 대흥

기회 4.62%, 부산롯데호텔 1.97% 등으로 나누어졌다. 롯데는 대한화재의 사명을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가칭)’로 변경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중 정식 계열사로 출범시킬 계획이다. 롯데는 지난해 12월7일 대주그룹과 대한화재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

를 체결하고 정밀실사와 세부 협상을 거쳐 이날 최종 계약을 했다. 롯데는 우선 백화점 24개 점포와 롯데마트 56개 점포에 보험판매 대리점을 설치하고 롯데홈쇼핑에서도 다양한 보험 상품을 선보이는 등 유동 계열사와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대한화재를 운영할 방침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올해 수출 투자릿수 증가세”

삼성경제연구 11% 전망

올해 수출 증가세는 작년에 비해 소폭 둔화될지만, 투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수입증가세가 수출증가세를 상회하면서 경상수지는 30억 달러 내외로 적자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1일 ‘수출 호조는 2008년에도 계속될 것인가’라는 보고서에서 올해 수출은 작년보다 11.0% 증가

해 4천129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올해 세계경기를 보면 미국 경기의 둔화와 글로벌 달러 약세 등으로 전년대비 수출 증가세의 둔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높은 성장세는 유지돼 개도국에 대한 정통 중공 위주의 수출이 수출증가세를 견인할 것이라고 연구소는 내다봤다. /연합뉴스

신용등급 1등급 대출한도 10등급의 4.5배

신용등급이 가장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 한도는 4.5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빛이 많으면 신용등급이 나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신용등급 간 대출금액 차이는 별로 없었으나 연체 금액은 뚜렷한 차이를 보여 연체가 신용등급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개인신용평가 전문회사인 한국개인신용(KCB)이 조사한 ‘신용등급별 통계 현황’에 따르면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는 1등급이 약 2천100만원, 10등급은 470만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신용등급이 좋을 수록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가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월간 대출금액의 경우 1등급은 4천500만원, 10등급은 4천400만원으로 등급별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반면 1등급은 연체가 전혀 없었고 10등급은 850만원 정도 연체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일 신용카드의 총 이용금액은 1등급의 경우 70만원인 반면 10등급은



20만원으로 대체로 신용이 좋은 사람이 많았다고 파악됐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은 중간등급인 6등급으로 월 카드 사용금액이 100만원을 넘었다. /연합뉴스

공기업 취업 갈수록 ‘좁은 문’

민영화 등 여파 채용 축소 불가피

올해부터 수년간 공기업의 취업이 예상보다 훨씬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는 정부부처 통폐합 조치와 298개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당초 예측보다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 공공부문 전체가 적은 인원으로 성과를 많이 내는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1일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부처 통폐합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는 공무원 채용 규모를 줄일 것으로 보이며 공기업들도 민영화, 통폐합,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신규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중앙부처 공무원 채용계획은 이미 공고를 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채용인원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 부처 채용인원은 5급 339명, 7급 1천172명, 9급 3천357명이다. 공기업들 중에서는 민영화·통폐합 등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국전력·주력공사·토지공사·코레일·인천국제공항공사·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의 신입사원 채용이 불투명한 상태다. /연합뉴스

55만명이 ‘취업준비’

4년새 58% 급증

기업체 입사나 공무원 임용 등을 준비하는 이른바 취업준비자가 4년만에 무려 58% 가량 증가하면서 5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최근 몇 년 동안 새로 생긴 일자리는 연 평균 30만개에도 못 미치면서 이들 취업준비자들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는 연 평균 54만6천명으로 관련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취업준비자는 2003년 34만5천명, 2004년 38만3천명, 2005년 45만7천명, 2006년 52만5천명, 2007년 54만6천명 등으로 4년간 58.3%, 20만1천명 늘어났다. 지난해 취업준비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취업준비를 위해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 통학하는 사람은 22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2.7%(6천명) 가량 줄었다. /연합뉴스